자료제공 : 2023. 1. 25.(수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	이정화	2133-8150
도로관리팀장	윤인식	2133-8152
담 당 자	양재신	2133-8160
	손창수	2133-8155
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 매수 : 3매

1.26(목) 새벽~아침 대설예비특보…서울시, 제설 총력대응

- 기상청에서 26일(목) 새벽(00시)부터 오후(15시)까지 2~7cm 눈 예보
- 25일(수) 23시부터 제설 2단계…서울시·자치구·유관기관 등 비상근무 돌입
- 인력 9,405명, 장비 1,394대 동원, 제설장비 전진배치, 제설제 사전살포
- 26(목) 출·퇴근시간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 30분 연장운행
- 계속되는 강추위에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 우려, 교통 및 보행안전 당부

□ 기상청에서 1월 26일(목) 새벽 00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~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, 대설예비특보(00시~06시)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.

□ 특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.25(수) 23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, 자치구,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.

□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

살포하고, 인력 9,405명과 제설장비 1,394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.

□ 골목길,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.

□ 또한 제설대책 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·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26(목) 출·퇴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.

○ 출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07시~09시 (연장) 07시~09시 30분

○ 퇴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18시~20시 (연장) 18시~20시 30분

□ 서울시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,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서울시는 이번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”이라며, “시민들께서는 출근길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